

보 도 자 료

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	▪ 2021. 05. 18. (화) ▪ 총 2쪽	
	▪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	성과확산팀 전태윤 팀장(02-3460-5112) 성과확산팀 정소원 행정원(02-3460-9237)

한국형사정책연구원,
‘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’으로 새롭게 출발
-법무정책 전반에 걸쳐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지원-

-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5월 18일(화)부로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(원장 한인섭)으로 새롭게 출발한다.
 - 이는 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’이 지난 4월 29일(목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18일자로 발효되는데 따른 조치이다.
 - 이번 기관명 변경을 통해 연구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여 민사·상사·송무·출입국 및 외국인·국제법·법조인력 등 형사영역 이외의 법무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지원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32년간 수행해온 범죄학, 형사법, 형사정책 중심의 연구에 더해 앞으로는 법무정책 전반에 걸쳐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.
 - 최근 형사정책을 넘어 법무정책에 대한 연구수요가 급증하는 외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, △민사법무 △상사법무 △국제법무 △통일법무 △출입국법무 △인권법무 △국가송무 △법조인력정책 △법교육 등 법무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연구기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.

-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은 그동안 법무부가 추진해온 정의와 인권의 실현 및 법치사회 구현을 위한 법무정책의 기초 하에 법무정책의 중장기적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법무정책의 종합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.

□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은 “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으로의 명칭변경을 계기로 형사정책 및 법무정책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방향제시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. 법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협업을 통해 구축해온 증거 기반 정책연구방법론을 기초로 우리 법무정책의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방향제시적인 연구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.” 고 밝혔다.